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 살아지다2 ‘승기천을 기억하다’				
구술자명	이현준	면담자	문성예		
면담장소	학산지속발전협의회	면담지원	-		
면담 일시	2019년 11월 25일(월) 오후6시	회차	1	시간	18분 38초
자료번호	Mi chuholCA-07-00001159				
구술 개요	용일초 뒤로 흐르던 갯물에서 친구들과 놀았던 기억. 흐르는 물이었기 때문에 아주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음. 용일시장이 잠겼을 때 그 물이 어디서 시작된 건지 모르겠음. 물길을 다시 살려 환경과 어울리게 하면 좋을 것. 다음 세대에게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미추홀구를 물려주고 싶음. 미추홀구에 문화예술이 더욱 융성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함.				
주요 색인어	승기천, 용일초, 용현동, 갯물, 다방구, 용일시장, 뚝방, 복개, 장마, 수봉산, 보훈병원, 용정초, 용현시장, 분식, 부평, 굴포천, 환경, 오염, 흙, 문화예술, 승의목공예마을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용일초 일대에서의 어린 시절			00:00:00~ 00:07:29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용현동에서 17~18년 정도 거주함. - 용일초 뒤로 갯물이 흘렀고 친구들과 다방구 놀이, 공차기를 했던 기억이 있음. - 물길이 용일시장 쪽에서 용일초 후문 밑으로 계속 이어져 있었음. - 82~83년도에 이미 뚝방은 아니지만 돌을 쌓아놓은 턱이 있었음. - 82~87년도까지는 복개하지 않았음.					
2. 수질					
- 물길이 현재도 있었다면 깨끗한 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을 것임. - 흐르는 물이었기 때문에 완전 지저분하거나 더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음. - 인하부고 자리에 있던 돌산에서 연날리기 등을 하며 놀았던 추억이 있음. - 돌산은 말 그대로 황토빛 돌산으로 물은 없었음.			00:07:30~ 00:07:53		
3. 미추홀구의 물길			00:07:54~ 00:09:10		
- 미추홀구에 물이 많았다고 하기는 애매함. - 용일시장이 장마로 잠겼을 때 그 물줄기가 수봉산에서 내려온 것인지 보훈병원에서부터 흘러온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음. - 보훈병원 일대도 산이었기 때문에 용일초까지 흘러왔을 수 있음.					

4. 용정초 일대에서의 어린 시절	00:09:11~ 00:09: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2~3학년에 보훈병원 쪽에서 살았음. - 용정초 다닐 당시에는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어 물줄기를 보지 못했음. - 1~3학년까지 용정초에 다님. - 학교 언덕에서 비료포대를 타고 놀거나 용현시장에서 분식을 먹었던 기억이 있음. 		
5. 물길의 회복	00:09:41~ 00:1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길이 남아 있다면 부평 굴포천처럼 생태적으로 활용했을 수도 있을 것. - 복개는 했지만 그 밑으로 아직 물은 흐르고 있을 것. - 다시 물길을 살려 주변 환경과 어울리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함. 		
6. 다음 세대를 위한 미추홀구	00:12:15~ 00:14: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살기 좋은 미추홀구를 물려주고 싶음. - 환경을 더 오염시키지 않고 그대로 넘겨주는 것이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함. - 예전에는 흙과 관련된 놀이가 많았고 넘어져도 흙바닥이어서 금방 아물었음. 		
7. 미추홀구에서 누리고 싶은 일상	00:14:56~ 00:18: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 활동을 하는 만큼 문화예술이 더 융성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함. - 현재 속해 있는 송의목공예마을도 더 활성화되었으면 함. 		